

김현미 장관 “한-영 지능형 도시·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”

- 27일 영국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 장관과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-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7일(화)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알록 샤마(Mr. Alok Sharma) 영국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 장관 (Secretary for the 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& Industrial Strategy)을 만나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날 면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당사국총회(COP26)의 의장으로서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샤마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.
- 알록 샤마 장관은 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“녹색 경제 회복(Green Economic Recovery) 정책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양국 간 친환경 교통,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의하였다.
- 김현미 장관은 한국 역시 UN 기후변화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'19년 『수소경제로드맵』을 발표한 바 있으며,
 - *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 2030 BAU(배출전망) 대비 37% 감축 목표
- 이를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, 수소시범도시 조성,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 확대,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.

- 특히, “세종과 부산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교통, 환경, 안전, 주거,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(ICT), 인공지능(AI)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재생 에너지, 자원 재활용 등을 도입해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한 수소 모빌리티, 수소 도시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(R&D), 정책 등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다.
-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(MOU)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이와 더불어,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, 탄소중립 사회·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영국의 녹색 경제 회복정책과 한국의 디지털·그린 뉴딜 정책이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공감하면서,
- 향후 코로나-19 위기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2020. 10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